

문화

광주·전남은 오래전부터 국악의 본향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전주와 남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의 악진이 두드러지면서 위기 의식이 팽배해 있다. 다른 공연 장르에 비해 관객층이 두텁지 못한데다 고령화된 국악의 경우 상설공연을 통해 꾸준히 관객들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0월 300회 공연을 마친 전남도립국악단의 '토요상설 공연'과 빛고을국악전수관의 '목요상설 공연'은 귀한 프로그램이다.

흥겨운 우리가락 300번째 국악잔치

지역 유일의 국악 전용 공연장인 빛고을 국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이 진행하는 '목요상설 공연'이 오는 17일로 300회를 맞는다.

▲판소리·독주회 등 다양한 장르 공연

지난 2002년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문을 연 전수관은 156석 규모를 갖춘 공연장과 국악 전시실, 국악 강습 실 등을 갖추고 있는 공간이다.

목요상설 공연이 시작된 건 2003년 5월. 당시 토요상설공연으로 운영됐다 주 5일제가 시작된 지난 2004년부터 이를 바꿔 매주 목요일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공연 레퍼토리는 다양하다. 판소리, 국악 관현악, 실내악, 대금·거문고 등 다채로운 악기를 만나 수 있는 독주회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공연됐고 무대를 찾은 국악인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송순습씨를 비롯해 주소연·박춘맹·전인삼·황연수씨 등 유명 소리꾼들이 출연했고, '지음', '더듬', '새늘' 등

17일, 빛고을 국악전수관 '목요상설공연'

수준높은 무대… 무료공연 관객 호응 좋아

지역 국악발전 위해 시 예산 지원 필요

음악그룹들의 활동도 돋보였다.

전수관측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300회 공연에는 성십온 전남대 교수를 초청,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전곡 연주회를 연다. 298회와 299회 공연에는 전남지역 국악 강사들로 구성된 'SORI' 공연단과 소리꾼 김산온씨가 참여한다.

현재 목요상설 공연의 1년 예산은 2200만원 수준으로 서구청이 전액 지원한다. 개인티가 5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지역 국악인들 뿐 아니라 타 지역 국악인들도 흥쾌히 출연,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관객들의 호응도 좋다. 매번 100여 명 이상이 공연장을 찾고 있으며 누

적관객은 4만2000여명에 달한다.

목요상설 공연이 의미 있는 건 지역 국악인들에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데 있다. 개인이 독주회나 발표회를 갖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끊임 없이 발표 무대를 제공, 실력을 펼쳐보일 기회를 갖게 해 줌으로써 지역 국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

▲서구청 예산 2200만원 지원

아쉬운 것은 예산이다. 특히 최근 3~4년간 문화관광부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또 다른 상설프로그램을 동시에 개발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보해보자고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

관객들의 호응도 좋다. 매번 100여 명 이상이 공연장을 찾고 있으며 누

지난해에는 문화관광체육부 관광 진흥개발기금과 시비·국비 등 7000만원 규모로 '토요상설공연'을 진행했고, 2007년~2009년에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 특별 프로그램으로 '수요 상설공연'을 진행하는 등 1주일에 두 차례의 상설 공연을 통해 풍성한 라인업을 갖췄었다.

그밖에 전수관 국악문화학교는 판소리, 가야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중급 과정을 운영, 기금까지 74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전수관에는 또 '국악기 전시실'(매주 월요일 휴관)도 갖춰져 있다. 편종, 편경, 가야금 등 국악기 150여점이 전시된 공간에서 직접 악기를 만져보고 연주해 볼 수 있으며 해마다 4000여명이 다녀간다.

전수관 장용수씨는 "목요상설공연은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과 외국인들의 방문도 많다"고 밝혔다.

문의 062-350-4556.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소리공연단

문화전당 예술극장 공연 2차 작품공모

▲아문화중심도시, 4월25일~5월13일 접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2011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 공연 작품(안) 2차 국제 공모' 사

업을 진행한다. 당선작에는 작품 개발비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작품은 오

는 8월28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리는 창작워크숍에서 선보인다. 성과에 따라 향후 예술극장의 공연 작품으로 제작돼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다.

작품 성격은 아시아적 소재와 전통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광주의 지역성을 담은 커뮤니티 친화형 작품 등이다. 접수는 오는 4

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다.

지난 1차 공모에는 13개국 총 71개 작품이 출품돼 3작품이 선정됐다.

선정작 중 두 작품은 워크숍 기간 중 국내 초연 및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 문의 02-3704-3433.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목조주택 &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 천한경 체조
■ 한국 판교 일본 편백 · 활보드 · 계르마늄 분말(활트, 계르마늄 토플)
■ 천한경 흙음체, 천한경 단엽체, 불연칼라 나강 마감체, 목보드
■ 각종 내장장재
■ 톨수목, 남미산한테크재, 동일산 아이플(오일스테인), 연동도어, 보석유리, 접수유리창문, 필름합판, 문짝, 물량
■ 판매매점
■ 장농 · 5단서랍장 · 수납공간 · 불박이장 · 죽유기 · 독서대 · 책상Se(의자 · 책상0)
■ 침대 · 셀프 · 편백간강재(편백나무 + 겉껍자씨았) · 편백나무베개 · 편백기기기 수제

■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주문제작

전국 · 전남북 · 시 · 군 대리점 모집

판매 및 창업문의 010-3609-4321

■ 협력사 | 우진페이퍼밀딩 |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석고보드총판 | 라파즈 석고보드 총판 | KCC강화마루 | 동화마루 대리점 | 레토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나무 베개

거실장 | 책상 Se(의자 · 책상0) | 침대 | 서랍장 | 침대 | 드레스 | 편백